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한혜진 안방극장 컴백

KBS '가시나무새' 출연

탤런트 한혜진이 KBS 2TV 새 수목극 '가시나무새'(극본 이선희, 연출 김종창)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프레지던트' 후속으로 다음 달 29일 첫선을 보일 '가시나무새'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극단적으로 다른 선택을 한 두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한혜진은 가시나무새의 전설처럼 고된 운명에 맞서 모든 희생을 감내하는 강인한 여인 서정은 역을 맡았다.

단역배우지만 언젠가 스타가 되길 꿈꾸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서정은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스타가 되면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무대 그리웠어요”

“동방신기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동방신기의 2막이며 팀을 떠난 세 멤버가 소속사(SM엔터테인먼트)와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온다면 그때 동방신기 3막이 시작되겠죠.”

2년3개월 만에 신보 '왜(Keep Your Head Down)'를 발표한 동방신기(유노윤호 25, 최강창민 23)는 2인조로 복귀하게 된 배경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동방신기의 재중, 유천, 준수가 2009년 소속사와 전속 계약 분쟁을 벌이며 팀을 나가 지난해 그룹 JYJ로 활동하는 동안 공백기를 겪었다.

두 멤버는 “무대에 선 우리 눈에 레이저가 나오지 않던가”라며 “우리 둘을 바라보는 격정스런 눈빛을 떨치고자,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무대가 그리웠다”는 유노윤호는 “첫 방송 때 ‘내가 원래 무대에서 노래하던 사람이었구나’란 생각에 울컥 했다”며 “방송을 마치니 울기 직전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음악과 퍼포먼스에서 세 멤버의 부재를 메우고 두 멤버를 조화시키는 일이 급선무였다.

유노윤호는 “새 음반에서도 동방신기의 기존 음악 스타일을 이어나갔다”며 “창민이의 고음과 나의 중저음대 보컬을 살릴 곡이 필요했고 타이틀곡 ‘왜’가 바로 그런 곡이다. 두 멤버가 선보이는 퍼포먼스도 한층 강렬해졌다.”

‘왜’의 노랫말이 떠난 멤버들에 대한 ‘디스(Diss : 누군가를 모욕한다는 뜻, 노랫말로 타인을 공격하는 것)’라는 일부 네티즌의 시각에 대해서는 “떠나간 여자에 대한 한 남자의

마음을 담은 노랫말”이라며 “노래 가사가 내 얘기 같을 때가 있듯이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팀을 떠난 세 멤버에 대한 지금의 감정도 꽤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우리는 그들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동방신기가 잊혀지면 안되니 5년, 10년 기다릴 수 없었죠. 그 친구들이 ‘맞다, 나쁘다’를 떠나 소속사와 갈등의 골이 깊어져 너무 멀리 갔고 우리와도 연락을 안한 지 오래 됐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누군가는 동방신기를 지켜야 했어요.”(유노윤호)

그들과의 재결합 여지가 있는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노윤호는 “이 문제는 세 멤버와 소속사의 대립 및 소속”이라며 “내 입으로 모든 사정을 말하긴 힘들지만 SM 안에서 동방신기가 만들어졌으니 그들이 소속사와 화해하고 돌아오는 게 맞다. 소속사와 풀어야 우리와 애

기하는 것도 빨라진다. 이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JYJ가 인터뷰에서 “과거에도 앞으로도 동방신기”라고 말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최강창민이 입을 열었다. “동방신기는 애초부터 SM의 기획 아래 만들어진 팀이죠. 다섯 명이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즐겁게 활동했어요. 무리를 벗어난 새들이 우리 아직 그 무리에 있다고 얘기하는 건 모순인 것 같아요.”(최강창민)

두 멤버는 자신들에게 동방신기란 개인 활동을 하다가도 언제나 돌아가길 수 있는 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내 활동 재개와 함께 일본 활동에도 재시동을 건다. 오는 26일 ‘왜’와 ‘맥시멈’을 일본어로 담은 싱글을 발표하고 오는 25-26일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의 도쿄 공연에도 참가한다. /연합뉴스

“팀 정통성 지키기 위해 컴백
첫 방송때 정체성 찾은 것 같아 울컥
멤버들 분쟁 끝내고 돌아오길 기다려요”

← 최강창민

東方神起

유노윤호 →

“팬 사랑 행복해요”

“유산·이혼 아픔 뒤 12년만의 컴백 기억해주는 사람 없어 섭섭하기도 ‘시크릿 가든’ 참 고마운 작품”

“너무 행복합니다. ‘시크릿 가든’은 제 자존심을 살려준 드라마예요. 배우로서 사랑받으니 행복합니다.”

탤런트 박준금(49)이 SBS TV 주말극 ‘시크릿 가든’의 문분홍 여사로 인기몰이 중이다.

“문분홍은 상위 0.1%에 해당하는 집안의 상속녀에

‘시크릿 가든’ 박준금

요, 여왕처럼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죠. 품위가 있고 유식한 척을 하기 때문에 말할 때도 범상한 언어를 쓰지 않아요. 을, 를 조사를 잘 안 붙이고 딱딱 끊어지게 말을 해요. 마치 표어처럼. 그래서 대사 외우기가 어려운데 최근 몇주간은 대본이 촬영 당일에도 나오는데 대사는 많아져서 매번 미친 듯이 외우고 있습니다.”

‘시크릿 가든’의 짧은 시청자들에게 박준금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문분홍 여사지만 그에게는 1982년 데뷔해 10년간 인기를 누리 화려한 시절이 있었다.

경희대 무용과 재학 중이던 1980년 ‘국풍80’ 행사에 참여했다가 KBS PD의 눈에 띈 그는 그로부터 2년 뒤인 1982년 KBS 연속극 ‘순애’의 여주인공으로 전격 발탁되며 연기자의 길을 걷게됐다. 인기를 이어간 그는

결혼과 함께 본의아니게 활동을 중단하게됐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12번 유산했어요. 모두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았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했죠. 생명은 하늘이 주시는 거라 인력으로 는 안되더라고요.”

이혼 후 그는 2005년 SBS ‘사랑과 야망’에서 홍호(전 노민) 엄마 역을 맡아 1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다.

“돌아왔는데 아무도 날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5년 만에 ‘시크릿 가든’을 만났어요. 너무 고맙죠.”

한편, 박준금이 실제 부유한 상속녀라는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스포츠센터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특별한 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화순 이리spark

창을 열면 청정 수목원, 문을 나서면 만연산 푸른빛 환경이 빛나는 푸른숲 전원주택을 만나보십시오.

1단지

2단지

賢晶産業開發(株) | TEL 062-385-1013·1014
HYUNJOUNG INDUSTRIAL DEVELOPMENT INC